

중국발 광생이모자반 습격 신안 해역 양식장 절반 폐허

2740t 밀려와 악취에 피해 속출

자은면 김양식장 85% 초토화

인력·장비 총동원 수거 구슬땀

서삼석 의원 해수부 등 대응 간담회

중국발(發) 광생이모자반이 신안해역을 덮치고 있다. 김·미역·전복 양식장으로 유입돼 절반 가까이 피해가 발생했다. 해수욕장과 해안기는 광생이모자반이 쌓이면서 악취가 진동한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울머어 확산도를 비롯해 하의·자은·도초·비금 등 신안해역에 2740t의 광생이모자반이 밀려와 양식장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생이모자반은 19일 현재 확산도 1115t을 최고로 히의 519t, 자은 266t, 도초 240t, 비금 185t, 지도 104t, 증도 101t 등 신안 전역에 확산됐다.

이 중 1156t이 김과 미역, 다시마, 전복 등 양식장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 양식장의 경우 김발에 모자반이 20일이 넘도록 흡착돼 생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또 김발에 붙은 모자반 제거작업으로 일손이 추가로 들고, 상품성마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안지역의 김 양식장은 1차 곱창김 생산을 마치고 2차 포자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어린 포자들이 모자반에 의해 뿌리를 내리지 못

하고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자은면 김 양식장의 경우 전체 5510척 중 약 85%에 해당하는 4700척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도 종자대로 산정하더라도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또 하의면은 519t 중 73.6%인 382t이, 지도읍은 104t 중 101t(97.1%)이 양식장으로 유입돼 피해를 키웠다.

신안군 관계자는 "해안가로 밀려온 모자반을 수거하고 있으나 밀려오는 모자반양을 예측할 수 없어 김 양식장은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해안가와 양식장 등에 밀려온 모자반 2740t 가운데 1134t을 수거했다. 수거인력 1356명과 중장비 132대, 덤프트럭 9대, 선박 366대, 옹달차량 53대 등이 동원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생이모자반 피해 대응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등 3개 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7일에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신안군 자은면 양식장 현장을 방문했다.

서 의원은 "해안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관련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도 김 양식 어장 피해와 해안 오염 유발 가능성이 큰 광생이모자반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신식 방제정과 경비함 11척을 투입하는 등 피



중국발 광생이모자반이 신안 김·미역·전복 양식장을 덮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안 하의도 해안가를 뒤덮은 광생이모자반. <신안군 제공>

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부터는 군산과 부안해경 등에 배치된 벨트식 유희수거를 갖춘 최신식 방제정 3척을 수거 현장에 투입하고, 1500t급 경비함정을 비롯한 8척의 합정과 영안 구조정을 광생이모자반 제거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나눔 실천 온정의 손길

목포무안신안축협, 소외계층에 쌀 1000포 기탁

목포무안신안축협이 지난 19일 무안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백미(10kg) 1000포를 무안군에 기탁했다. <사진> 무안군은 기부받은 쌀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지역 축산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축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장학금 기부와 쌀 기탁 등 사회공헌활동을 펴고 있다.

이겨낼 수 있는 양식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축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주)삼안, 사랑의 성금 1000만원 영광군에 전달

(주)삼안이 최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해 달라며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을 영광군에 기탁했다. <사진> 최동식 삼안 대표이사는 "이번 성금 기탁을 계기로 영광군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기 원한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과천시에서 본사를 둔 삼안은 수력, 수자원, 상수도, 도로, 철도, 도시계획, 항만, 환경분야의 조사, 계획, 설계, 감리 업무를 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다.

그동안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호 조력발전소 설계를 비롯해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댐인 충주댐, 서울시 정계천 복원사업,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도시설계,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디자인 등을 담당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해남군 고구마산업 종합발전 5년간 297억원 투입

연구센터 건립 등 26개 사업 추진

해남군이 고구마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한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고 품질 고구마를 생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해남 고구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297억 원을 투입해 생산과 유통, 가공에 이르는 총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해남군이 '고구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오는 2025년까지 297억원을 투입해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해남군 제공>

고구마 신품종 육성과 생산기술 연구·보급 기능을 담당할 '해남고구마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설립될 해남고구마연구센터는 외래종 고구마를 대체할 해남 특화의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기상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품질 저하에 대처하는 안정적인 생산기술 연구, 가공 상품의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시설과 노지 시험포를 갖추고 해남고구마 생산·가공, 식품소재 개발 등 명품화 기반을 조성한다.

해남군은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생산 기반구축과 선별·세척·큐어링(수확 후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상처부위를 미리 치료하는 작업) 등 시설·기술 지원을 통해 품질을 균일화하고 상품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현재 10% 수준인 고구마 가공·반가공 비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고구마 수출도 현행 70t에서 300t까지 늘어난다.

이를 위한 상품개발·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과 함께 수출 전문 생산단지가 2025년 200ha까지

확대된다. 해남은 600여농가, 1964ha 재배면적에서 연간 3만4000여t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전남 최대 고구마 주산단지다. 전국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세열골

"끊임없는 현장소통으로 신뢰받는 해경 되겠다"

안성식 완도해경서장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제21대 완도해양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안성식(53) 총경은 "안전하고 깨끗한 다도해를 책임지는 완도해경서장으로 부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

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생인 안 서장은 사법연수원제37기로 사법시험을 통해 해경에 입문했다. 제주해경청 상황실장, 해양경찰청 법무팀장·행사계장·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충남취재본부장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